

영암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신나요”



영암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한 ‘청소년 꿈다락 한마당’ 행사가 지난 26일 500여명의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풍성한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청소년 꿈다락 한마당’은 “꿈이 많으면 즐거움도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체험과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제공코자 군에서 아낌없이 준비한 행사로 기념식과 나눔마당, 참여마당 어울림마당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자치기구가 직접 기획에서부터 행사장 준비까지 발 벗고 나섰다. 올빼미가족봉사단, 방과후 아카데미가 가세하여 나눔과 체험거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새마을문고 군지부,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삼호읍청소년

500여명 청소년·주민에 참여·체험기회 제공
“나눔마당 등 수익금 또다른 좋은 일에 쓰일 것”

문화의집, 영암고·영암여고·삼호고 학교동아리 등 지역 관련자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지역자원과 결합된 새로운 트렌드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20여개의 운영부스 중 마음을 나누는 아로마테라피와 7080 인생사진관에서는 감동을 맛보고 파티클과 드론·VR 체험장에서는 화끈한 체험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의 마술공연으로 시작된 어울림마당은 청소년 팀의 공연과 축하공연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영암고 출신 박사 이즈크루의 DJ DJ의 무대는 400여

명의 참여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멋진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마당은 당초 계획인 400여명을 훌쩍넘는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 준비한 만큼 보람도 크며, “나눔마당 운영 등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자치기구 등이 주축이 되어 또 다른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청소년의 주제적인 문화 활동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4월 청소년 페스티벌, 5월 꿈다락 한마당 11월 청소년대잔치와 각종 지역축제 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어울림마당을 마련, 청소년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기 살리는 해남 먹거리 여행

남도의 참맛 찾아 떠나는 해남 미식여행 4선

달력의 날짜는 아직 싱그러움에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나른해지는 봄과 마음, 충전이 필요하다.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을 힐링했다면 내복에도 건강한 여름맛을 준비하자. 여행의 절반은 먹거리, 기 살리는 해남 음식으로 올 여름 사기충전 해보자.

▶닭 한 마리로 즐기는 신선농음! 고산운선도유적지와 닭코스 요리



녹두장과 해남읍씨 600년 장구한 역사와 고산 운선도, 공예 운두서 등 당대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 고산운선도유적지를 간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즐길 수 있는 닭 요리의 결정판, 닭 코스 요리이다. 가슴살을 저며낸 육회, 붉은 양념으로 볶아낸 닭 불고기, 오븐에 구운 비식한 닭 구이, 한약재를 넣고 푹 삶은 보양백숙, 깔끔한 닭죽까지 5가지 요리를 차례로 맛볼 수 있다.

작은 삼계탕이 아니라 제대로 키운 시골닭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요리이다.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음식점에서 유래되어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잡았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건강식! 대흥사와 치유음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천년고찰 대흥사와 두류산 인근에는 웰빙 음식촌이 있다. 두류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채소들과 약초, 보리밥으로 차려낸 산채정식은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밥상으로 이름이 높다.

최근에는 연잎, 솔잎, 렌틸콩 등 특색있는 재료를 활용해 만든 치유음식도 선보이고 있으며, 버섯요리, 손두부 등 음식점마다 대표 메뉴가 따로 있다.

▶남도 음식의 끝판왕! 진정한 로컬푸드, 해남 한정식

전국 최고의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지역답게 해남의 한정식은 바다와 산, 육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료로 차려진다. 땅끝 정정바다의 싱싱한 해산물부터 황토밭에서 자란 농산물, 제철을 맞은 산해진미가 한상 가득 차려져 나오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100년 전통의 떡갈비 정식을 비롯해 남도 전통한정식, 퓨전 한정식 등 상차림도 다양해 졌다. 진정한 해남의 로컬푸드를 즐기고 싶다면 한정식이 제격이다.

▶니들이 회 맛을 알아? 땅끝마을의 일품 회정식과 디톡스 음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봤다는 땅끝마을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다. 싱싱한 활어회와 보리새우, 쭈꾸미, 낙지, 삼치회 등 계절별 해산물들로 구성된 회정식은 단연 전국 으뜸이다. 이와 함께 생선을 비롯해 해초, 조개 등을 활용한 디톡스 음식도 땅끝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이다.



곡성군 청년귀농, ‘꿈엔들’ 베이스캠프서 시작한다

4가구 임시거주 공간...합숙형 귀농인의 집



“천 년 전 고려청자 모습을 재현한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강진군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2018년 제2회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를 고려청자박물관 강진요 2호 가마에서 개최한다.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고려시대의 전통적인 청자가마를 이용한 제품 생산과 청자의 명품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불지피기와 관련한 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자상감운문매병 등 55점을 소성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5시에 가마에 불을 지피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31일 오후 6시까지 주야로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본 행사를 통해 고려청자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관광객들이 천 년 전 조상들의 고려청자 제작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은 지난 26일 청년들을 위한 귀농인의 집 ‘꿈엔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꿈엔들’이란 귀농귀촌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곳으로써 청년 귀농귀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임시거주 공간이다. 4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공동농사, 농촌생활기술 등을 익히고 농촌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 합숙형 귀농인의 집이다.

개소식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귀농운동본부 대표, 에너지 적정

기술협회가 참석했고 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곡성 청년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꿈엔들’은 생태적인 삶, 자립적인 삶을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40세 이하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사체험, 적정기술 및 농촌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베이스캠프로 운영한다.

향후에 협동조합 정의득 이사장은 “귀농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흥과 가래를 삶을 지향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꿈엔들’이 기쁜 언덕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청년정책이 큰 이슈인 시기에 우리 군에서 이런 청년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꿈엔들’이 징검다리 가 되어 귀농귀촌 활성화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월드컵 대표팀 선전 기원, 곡성서 시작

‘히딩크의 축구의 신’ 오디션 프로그램, 곡성군 촬영분 내달 방영

곡성군은 오는 6월 14일 개최되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불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축구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히딩크의 축구의 신’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통해 오는 6월 3일 오후 5시 50분에 첫 방송을 탈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곡성군이 ‘히딩크의 축구의 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곡성군 관내 축구장과 섬진강기차마을, 도립사 관광단지, 강빛마을 등 곡성군의 여러 장소를 오가며 2주간 선수단 숙소생활, 훈련과정, 연습경기 등을 촬영한 내용이 방영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앙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